

서평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

신학과 철학을 쉽게 맛보기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추상적이고 학문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겠거니 하고 서평 수락을 하고 편집진으로부터 받아 본 이영진의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는 나의 예상을 빚나갔다. 추상적이라면 서러워할 철학을 초월적 존재를 다루는 신학과 연결하는 작업은 매우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저자는 독자들이 많이 접했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우리에게 그려 주고자 한다. 책 제목이 ‘철학과 신학의 관계’가 아니라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인 까닭이 여기에 있어 보인다.



원래 ‘몽타주’(montage)라는 말은 따로 촬영된 화면들을 영화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이어 붙임으로써 원래 화면들에는 없는 의미를 만들어 내는 기법을 뜻한다. 이는 이 책이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영화를 매체로 사용할 뿐 아니라,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 저자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를 몽타주라는 영화기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들은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몽타주 기법이 사용된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이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저자의 독특한 의미 부여를 감상하면 될 것이다. 몽타주를 통해 드러나는 의미에 공감하면 멋진 영화 한 편을 본 셈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면 될 것이다.

저자는 서양 근대철학이 기독교의 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신 이해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책의 논의를 시작한다. ‘아니오’라는 대답은 이미 신에 관한 강력한 전제를 띤다. 종교가 없을 뿐이지 신관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6면). 저자가 무신론적 경향을 보이는 근대철학을 신학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자는 미켈란젤로가 창세기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의 <프레스코>에 예수님의 12제자 대신 12명의

예언자를 집어넣은 점에 주목한다(15면). 저자에 따르면 미켈란젤로에게는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이방 세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15면). 저자는 12명의 철학자들을 다름으로써 그들 역시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피해 그들의 철학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15면).

1장에서 저자는 근대철학의 태동을 이해시키기 위해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소설을 매개로 하여 진리가 선형적인 보편에 있다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신관이 의심받는 과정을 그려 준다.

2장에서 '트루먼 쇼'와 '다크시티'라는 영화를 통해 데카르트가 신과 같이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들을 의심하고 수학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물질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뉴턴의 자연과학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3장에서는 흄(Hume)이 물질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는 단계에서 칸트가 도덕의 보편성을 확보하

기 위해 주관적 경험에 앞서 있는 선형의 영역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4장에서 저자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통해 헤겔이 우리의 현실이 논리적인 법치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모순된 현실임을 깨닫고 '정'과 '반' 사이의 대립과 모순을 뛰어넘는 변증법적 발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4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진정한 법의 수호"가 자신의 의를 유지함으로써 법치를 대변한 자베르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자의 의를 선물받은 장 발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점이다(95면). 저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기독교의 명제를 장 발장의 삶을 통해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 저자는 다윈이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 개념을 계승해서 칸트가 비판하고자 했던 회의주의가 습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습관을 본성에서 생기는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화한 결과로 설명하고자 했



이경직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Konstanz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논문을 썼다. 백석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신학석사, 신학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대학원 교무처장으로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Platons Raumbegriff』, 『기독교와 동성애』, 『기독교철학의 모색』,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 『플라톤과 기독교』가 있고, 공저로는 『신앙과 논리』, 번역서로는 『사랑의 모델』, 『헬레니즘 철학』, 『철학자 예수』, 『공간 개념』, 『기독교철학』, 『칼뱅』 등이 있다.

다는 점을 강조한다(102면). 저자는 기독교마저 성공주의에 빠져 성공을 진화로 보는 진화론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비판한다(106면). 도킨스는 이기적 성공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타적 사랑과 희생조차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바람직한 돌연변이로 설명하고자 한다(107-109면).

6장에서 저자는 ‘트루먼 쇼’를 통해 마르크스가 주장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의 모순, 즉 직접 생산자의 이해와 자본 소유자의 이해 사이의 충돌이 ‘부정의 부정’이라는 변증법적 폭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종교를 “관념으로 이루어진 착시”인 아편으로 여긴 마르크스의 견해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확실한 물질 토대에 기인한 것”으로 여기며,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행위”를 실천이라고 부른다는 데 있다(129면). 저자는 마르크스가 그리스도교를 자기 철학의 경쟁자로 여긴 까닭을 여기서 찾는다(129면). 저자는 마르크스가 그리스도교를 오해한 이유를 그리스도교가 상징을 제거하지 않은 데서 찾는다(133면).

7장에서 저자는 ‘쇼생크 탈출’을 매개로 삼아 니체가 사회를 자유를 감금하는 감옥으로 여기는 이유를 설명한다(138면). 저자에 따르면 니체는 노예도덕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가 가난한 자에게 철저한 복종의 노동만 강요하는 산업사회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니체에 따르면 산업사회의 억압적 구조에서 탈출하는 길은 자살밖에 없는데, 저자는 자살을 “스스로 감옥 생활을 종결짓고 싶은 심판주의 충동으로서 존재한다”고 평가한다(146면). 저자는 그리스도교의 신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죽음을 부정함으로써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한다(145면).

8장에서 저자는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통해 프로이드의 공적을 “관습과 전통의 강제로 존재하다가 법률의 강제로 발전한” 터부라는(163면) 자기 내면의 우상을 제거한 데서 찾았다(159면). 하지만 저자는 모든 터부를 해체할 때에 우상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모든 믿음이 파괴되는 현실을 우려한다(166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에 결연히 따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167면).

9장에서 저자는 ‘트루먼 쇼’를 통해 하이데거가 존재를 은폐되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의미를 담은 텍스트는 탈은폐되는 해석과정을 통해 생겨난다(178-179면). 저자는 텍스트가 유대인과 같은 특정인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 그리스도에 의해 계속 생성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의 심장에 까지 새겨질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다(184면).

10장에서 저자는 ‘큐브’라는 영화를 통해 소쉬르가 그 구조를 “누가, 왜, 어떻게 만든 것일까 하는 인과관계나 목적물”은, 즉 구조의 내용은 묻지 않고 오직 구조만을 다루는 이유를 설명한다(192면). 소쉬르에 따르면 랑그는 “언어활동 연구의 정신적 측면”을 나타내며, 파롤은 “정신적이면서도 물리적인 측면”을 나타낸다(195면). 소쉬르는 구조주의를 인간학에 적용함으로써 언어를 “개별로 형성된 의미체계가 아니라 기호 간의 차이에 의해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197면). 저자에 따르면 소쉬르에게서 기호, 즉 구조가 신이 되었다(199면). 흥미로운 점은 구조주의와 관련해서 저자가 그

리스도교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 언어로 여기는 입장과 아이들을 수 없기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비정상 언어로 여기는 입장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200면). 저자는 오순절에 임한 방언을 바벨탑의 언어 분열과 연결해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바벨탑의 분열은 탑의 축성에 대한 징벌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확산’이라는 새 창조의 질서이기도 했다(203면). 저자에 따르면 이처럼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확산되지 않고 축성된 채로 방치된 탑/성으로서 예루살렘을 해체함으로써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보다 넓은 청중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한 “성령의 새 창조”였다(203면). 저자는 방언을 “말하기보다 부지런히 들으라”는 기의 하나와 ...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서 해석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204면). 저자는 방언을 “섭리에 따라 사물에 계시를 부여한 신”의 ‘들으라’는 서명으로 이해한다(204-205면).

11장에서 저자는 ‘식객’이라는 영화를 빌어 라캉 철학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신프로이트 학파는 성 본능과 성적 욕구를 생물학적 법칙으로 제시한 프로이트의 과격함을 피하기 위해 “사회 환경과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210면) “정통 심리학을 개개인 심리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상담학으로 축소하고 말았다(223면). 저자에 따르면 라캉은 프로이트의 남근을 결핍 때문에 생기는 ‘타자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환유로 받아들인다(212면). 저자는 가인에 의해 살해된 아벨이 자신의 희생 후에 발언하기 시작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아벨을 “없지만 있는 자”로 규정한다. 그리스도교가 희생 또는 침묵으로 여기는 것을 라캉은 욕망으로 본다.

12장에서 저자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통해 데리다의 철학에 나타난 신 이해를 설명한다. 저자는 “기호의 시대는 본질적으로 신학적”이라는 데리다의 명제를 받아들인다(229면). 저자에 따르면 ‘시네마 천국’은 해체를 표절이 아닌 작품으로 규정한다. 데리다는 말(파롤)이 “생생한 삶이라고 주장”하여 말을 문자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로고스중심주의를 저자 개인의 음성에만 특권적 지위를 주는 신학이라고 비판한다(234면). 데리다는 원저자의 상황을 보존하는 흔적과 자국을 나타내는 문자인 에크리튀르가 파롤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234면).

저자는 신학과 철학을 몽타주 기법을 통해 연결하고자 한다. 저자의 시도는 이러한 몽타주 연결을 통해 신학과 철학이 이런 식으로 연결될 때 각각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데리다에 의하면 저자의 이러한 시도는 정당화된다. “차이의 이어짐이 한 목적에 종사”하기 때문이다(240면). 저자는 이 책의 논의를 통해 해체주의를 주장한 데리다조차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근대 철학의 핵심을 로고스와 관련하여 한 번에 들여다보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신학과 철학의 풍성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연구들이 이 책을 계기로 더 쏟아지길 기대한다. ☺